

## 7. 또 믿어줄 수 있을까요? / 김종윤 목사

본문	사도행전 11:24-26, 15:36-41	주제/사건	바나바의 결단 / 사람을 살리는 믿음
문제제기	<p>▶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누군가를 향한 깊은 관용과 기대를 품은 사람</p> <p><b>상황1. 바울을 찾으려 '다소'로 가는 바나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소'에 10년 동안 칩거 중이었던 바울</li> <li>cf. 다메섹 회심 후 바울의 여정 (행 9장 참조)</li> </ul> <p>회심 직후 곧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그의 '과거'를 알았던 기독교 공동체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행9:20-22).</p> <p>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3년간은 아라비아 광야에서(행9:23), 그리고 10년간은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었다(행9: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온 직후, '바울'을 교회 공동체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러나 실패... 교회가 바울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함.)</li> <li>- 그 바나바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바울'을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로 소개하기 위해 다소를 찾았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와 함께 제자훈련 사역을 진행하였다.</li> </ul> <p><b>상황2. 1차 전도 여행 중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을 다시 품으려는 바나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바울'과 '바나바'</li> <li>-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며, "절대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바울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바나바</li> <li>- 그리고 그 둘의 '심한 다툼',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li> </ul> <p>&lt;문제제기&gt;</p> <p>목사님! 바나바(위로의 아들)... 지금의 '권사' 직분의 유래가 되는 그런 사람 인데요. 과연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p> <p>내게 '잘못' 했던 사람을 다시 믿어주고, 다시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또 속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당할지도 모르는데, '바나바'처럼 살 수 있을까요?</p>		
설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용/용납'에 대한 주제 설교</li> <li>- 사람을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li> </ul> <p>고린도전서 13:4, 7</p> <p>4 사랑은 오래 참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다. '죄인'을 불러 '제자'로 세우신다.</li> </ul> <p>아직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가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세리(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마태'를 품고 기대하셨던 것이다. (마 9:9-13)</p>		

## 그 사람,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 .

사도행전 11:24-26,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밀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5:36-41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 바울은 밤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 사역의 시작은 사연이 있다!

오늘도 전체적인 말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사울의 회심한 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이 아니니 아를 만나 눈을 뜨게 된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행 9장 22-30절.

22.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밀지 아니하니
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8.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의 회심 사건이 너무 축약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되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어떤 지식이나 체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뜨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의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드네요.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크리스천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일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양쪽이 다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23. 여려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궁금한 것은 ‘여러 날’이 얼마나 되고, 그 날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황’이 아닌 ‘죽이기로’ 공모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하고 있었으니, 이 유대인들은 사울의 배신으로 분노한 박해자들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들의 계교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그를 도망가도록 도와준 ‘제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4.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담아 내리니라

이 부분이 참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고꾸라진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 배척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도왔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해서 자꾸 근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될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여러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는가?
2. 여러 날 만에 사울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갑자기 톡 튀어 나왔는가?
3. 사울은 무슨 인맥으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가?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단서가 갈라디아서 1장 17-18절에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계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

이 말씀을 사도행전 9장과 잘 연결해 보기 바랍니다.

1. 23절에 나와 있는 ‘여러 날’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로, 단순히 ‘날’이 아닌 오랜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말씀과 연결해 보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3년의 기간이 존재했는

데 그곳이 ‘아라비아’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도바울이 그 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사도로서의 많은 자질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지금의 ‘페트라’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아리비아의 ‘나바티아’(Nabatea) 왕국은 무역으로 상당히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천혜의 요새로 지금도 페트라가 가보면 불가사의한 고대 왕국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성정으로 보아 단순히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가 회심했던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여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죠. 사도 바울은 여전히 배척을 당합니다. 9장 27-30절.

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8.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야 사도행전 9장과 11장에 나오는 바나바의 역할과 행적이 이해가 됩니다.

‘다소’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드디어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러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연결해 보니, 배척받고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을 고향인 다소를 보낸 사람도 바나바요. 다소에서 다시 바울을 데리고 나와 안디옥으로 향한 사람도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도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해가 41년,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1차 선교여행을 떠난 해가 51년이니,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머무는 동안 드러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본격적으로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드러나지 않은 1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대로,

지금 사도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던 옛 사람 ‘사울’이 아닙니다. 이미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나며 선교하며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또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피신해 고향 ‘다소’에서 10년간의 시간을 지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잊힌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초신자들을 목양할 사람들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던 사람 ‘사울’을 찾아가 ‘바울’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본격적인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6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미 1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 의해 배척을 당했고,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는 동안 누구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 사울을 바나바가 기억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착한 것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나바는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기 보다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추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를 드러내기 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래 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놈, 놈, 놈”이라는 영화인데.

하나는 착한 놈, 다른 하나는, 나쁜 놈, 그리고 나머지는 이상한 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 평가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하는 어떤 분은 연말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동네 반장에게 가서 물어보라!”

어쩌면 가장 명확한 사람의 평가는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상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폭스 잭슨이라는 신학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 위해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를 살맛나게 해 주는 사람이었다**”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 주었던 인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는 제목인데, 늘 연못가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 날아보는 게 소원이었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이 그 소원을 듣고 하늘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학의 다리를 물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다리를 물고 있는 걸 놓지 않도록 입을 벌리지 말라는 당부를 듣습니다.

개구리가 하늘을 날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더욱 좋은 것은 땅에 있는 수많은 개구리들이 하늘을 나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수 많은 개구리들이 물듭니다.

“너는 누구니?”

자신을 부러워하는 개구리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었던 개구리는 청지 못하고 대답을 합니다.

“나야!”

그러나 대답을 하는 순간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솝이 이 우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멋지게 사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멋지게 하늘을 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첫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며 돋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밭 앞에 내려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시 초대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만들었죠.

그 때, 그것을 흉내 내려던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5장을 통해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님께 쓰임 받은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빛나는 일을 하지만 빛이 나지 않는 그를 하나님의 귀하다 여기지 않았을까요?

### 믿어 준다는 것, 그리고 용납한다는 것은 . . .

여기서 저는 ‘용납’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용납이란,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증명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지만’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믿어 준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7 모든 것을 참고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위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이나 완벽한 사람이 아닌,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용납하셔서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믿어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용납했기에 ‘바울’이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바나바는 아주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위대한 사람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은 바나바의 용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오합지졸과 같은 존재였던 공동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준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에 근거해 보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란 구절이 있는데, 사도바울에게 특별히 가르침이 은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에 ‘가르침’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5장 36-41절을 보겠습니다.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 바울은 밌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이후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며 동역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배신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사역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 할 사람을 택하는데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엇갈린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심히 다투어’라고 되어 있으니 꽤 심각한 문제였고,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이후에 더 이상 둘이 함께 사역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죠.

이 논쟁의 핵심에는 ‘마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13장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서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사역을 했기에 그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마가가 선교여행 중 밤플리아에 이르렀을 때, 사도바울과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의 근거지가 있는 곳이니, 어쩌면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선교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바울의 기질로 보아, 어려움에 처해 도망가는 사람들 데리고, 돌보며 사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자고 고집합니다.

모두가 배척했던 사도바울을 그가 용납해서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처럼, 마가 역시 그가 영적으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 만일, 바나바도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은 미숙하고, 바울에게도 배척받는 사람이었지만 바나바가 그를 용납했을 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사도바울이 마가를 품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과 부딪치는 사도바울을 보게 됩니다. 참 열정적인 것만큼이나 자신의 감정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빼치고 잘 풀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묻어납니다.

어쩌면 사도바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직은 치유되지 못한 감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던 상처와, 예수 믿는 이들을 펍박했던 과거로 인해 더욱 치열하려고 했던 조바심 같은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가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성숙한 모습이지만, 이 당시 사도바울은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고, 어쩌면 더 많은 세월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헤어져서 마가와 사도바울이 원수가 되어 끝났더라면 참 불행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마음 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 아닐까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심한 다툼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았던 12제자를 제외하고 ‘사도’라 불림을 받은 사람인 바나바와 바울이 유일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을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중요한 것은 다툼이 아니라.

사도바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가를 용납하고 돌봐주었던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로 인해 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후 바나바의 역할은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고향 구브로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돌보기 위해 함께 갔는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의 살라미에 있는 바나바의 수도원에서 출판된 쿠마가 쓴 책자〉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 후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다. 조카인 마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외에 있는 바위 절벽에 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바나바에게 참 감사한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으므로 결국 바울과 마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중간에 바나바가 마가를 용납해서 영적으로 돌봐 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의 옥중 서신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뒷바라지 한 사람이 마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골4:10] 나와 함께 갈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甥姪)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딤후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몬1: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라고, 데마, 누가가 묻안하느니라

바나바의 용납이 없었다면,

바나바가 마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사도바울은 감옥에서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 더욱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쓰며 믿음으로 견디는데 큰 힘이 되었던 마가를 가지지 못 하므로 인해 더욱 힘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이 참 귀하게 와 닿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용납하므로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었던 사람 바나바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누군가를 믿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용납한다고 다 사도바울처럼, 마가처럼 쓰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 모두를 잃는 것보다,

믿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한 사람을 얻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라고 말입니다.